

# 절세위인들과 총련

## 총련의 대를 굳건히 이어주시려고

공화국의 해외공민인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총련조직의 부흥발전과 민족적권리를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가고있는 해외동포들속에는 제일조선청년학생들도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난 5월 제일조선인총련합회 제25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서한 《각계각층 동포 중군의 무궁한 힘으로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에서 총련부흥의 새시대로 향한 영예로운 진군길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기치는 마땅히 동포청년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제일조선청년들이 나아가갈 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서한을 되새겨볼수록 제일동포청년들을 총련의 대를 이어나갈 믿음직한 계승자, 고대자로 내세우시며 조선사회의 근본을 잊지 않고 멋있게 살아나가도록 나쁜 사람과 믿음을 배려해주신

절세위인들의 자애로운 영상이 숨얼허 안겨온다.

민족자주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 조선청년들의 대정치 축전인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당시) 제7차대회가 준비되고있던 1981년 10월중순 아버지수령님께 삼가 편지를 올릴 제일조선청년학생편지전달계주단이 평양에 왔을 때였다.

22명으로 구성된 계주단성원들이 이역방에서 꿈결에도 못 잊어 그림던 아버지수령님을 만나 비록 영광의 시각을 눈앞에 그려보며 대회가 열릴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있던 그때 대회 준비사업을 료해하시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한 일군이 대회 첫날 전국청소년들의 이름으로 수령님께 편지를 올리게 될 인원으로 조국에서 8명, 제일조선청년학생계주단에서는 2명을 선발하기로 했다는 것과 제일조선청년학생축하단의 축기증정은 대회 둘째날에 하기

로 예정되었다는것을 보고드리었다.

일군의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일조선청년학생계주단에서 두사람만 수령님께 인사를 드리게 한다면 나머지 동무들은 얼마나 서운해하셨는가, 머나먼 일본땅에서 총련의 모든 조직들이 보내는 편지를 안고 동해바다를 건너 달려온 그 성의를 보아서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계주단성원 22명모두에게 다 수령님께 인사를 드릴 영광을 안겨주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제일조선청년학생축하단이 올리는 축기증정 수령님께 대회에 참석하시는 첫날에 올릴 기쁨을 드려야지 둘째날에 올리는 안된다고 하시며 대회일정계획을 다시 세워주시었다.

이렇게 되어 주재70(1981)년 10월 20일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제7차대회장에서는 조형

계주단성원 22명이 한사람씩 주석단앞으로 나가 아버지수령님께 삼가 축원의 인사를 올리는 감격적인 광경이 펼쳐지게 되었다.

주시는 사랑, 바치는 총정기 하나로 융합되어 대회장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던 그 시각 조형계주단성원들을 정중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누구보다 열렬한 박수를 보내주시는 분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어제 그뿐이랴.

주재85(1996)년 1월 19일 공화국청년운동력사의 한페이지에 빛나게 새겨진 화폭은 또 얼마나 가슴뜨거운 것이었던가.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당시)대표자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려고 평양체육관에 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회에 참가한 조형계주단원들을 친히 곁에 데리고 댔다시며 조국의 청년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실 때 매년 그를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시었다. 제일조선청년축하단 성원들과 인정에 넘치신 담화를 나누시고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형계주단원들을 또다시 찾으시어 이번에는 자신과 기념사진을 찍자고 하시면서 그를 네차례나 자신의 곁에 세워주시는 하해와 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가까이에 있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에게 더 마음쓰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제일조선청년들을 보살펴주시신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은 총련의 년대기에 전설로 수놓아져 오도록 제일동포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그날로부터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위대한 아버지의 품에 안기었던 그날의 동포청년들이 오늘도 총련의 어엿한 일군들로 자라나 애국애족의 길을 변함없이 걷고있다.

본사기자 전영민

# 제2차 《김정은은국무위원장연구발표대회》 진행

## — 남조선에서 —

10월 4일 남조선의 진보운동단체인 《국민권선대》가 제2차 《김정은은국무위원장연구발표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단체는 남과 북이 서로에 대해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북을 알기 위해서는 김정은은국무위원장의 령도방식을 깊이 연구하여야 한다고 하다가 2018년 11월 서울 한복판에서 《김정은은국무위원장의 서술방향을 환원하는 백두청송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경애하는 원수님을 칭송하는 활동을 활발히 벌여왔다. 이번에 개최한 《김정은은국무위원장연구발표대회》는 2021년에 이어 두번째로 되는 대회이다.

이번 발표대회에서는 《김정은은국무위원장과 방역대전》, 《김정은은국무위원장의 눈물》, 《김정은은국무위원장과 삼지연시》, 《김정은은국무위원장과 명령》, 《김정은은국무위원장과 혁명동지》, 《김정은은국무위원장과 경부동》, 등 12개 주제의 동영상작품들이 나왔다.

이번 대회의 심사를 맡은 어느 한 대학교의 교수 김창현과 심사위원들은 《한결같이》를 가장 고 찬찬한 동영상작품을 보고 정말 많이 놀랐다. 모든 작품이 북을 리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경제체제를 알고 방역대전을 치르면서도 미소가 넘쳐나는 김정은은국무위원장이 정세가 복잡한 속에서도 전 국방부 상충문 현현해의 서거를 도하여 국가장의식을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하도록 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혁명적동지애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고 격정에 넘쳐 토로하였다.

《국민권선대》는 이번에 내놓은 12개의 화편전집들을 영예대전기인 인민군대에 특별명령을 내리시어 악성전염병위기를 가시기 위한 투쟁을 승리적으로 령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모신 화편전집을 《김정은은국무위원장과 명령》이 최우수상인 《대상》

을 받았다.

그리고 2020년 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연설에서 인민들에게 무탈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을 모신 화편전집을 《김정은은국무위원장의 눈물》이 《최우수상》을, 전 국방부 상충문의 서거에 몹시 슬퍼하시며 국가장의식을 최상의 수준에서 하도록 대대같은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적동지애의 감동깊은 화폭을 담은 화편전집을 《김정은은국무위원장과 혁명동지》가 《우수상》을 받았다.

수상자들은 소감발표자에서 《악성전염병사태로 세계 모든 나라들이 경제적타격을 입고 경기침체를 겪고있는 때에 김정은은국무위원장이 주요 당회의를 여시고 주민생활개선과 경제발전을 비롯한 모든 령역에서 높은 목표를 내세우시고 인민군대에 특별명령을 내리시어 악성전염병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모습을 통하여 김정은은국무위원장이 내리는 명령에 담긴 의미를 잘 알게 되었다. 김정은은국무위원장이 주민들모두가 무탈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을 접하면서 눈물의 의미, 북최고지도자와 주민들과의 관계, 북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다. 김정은은국무위원장이 정세가 복잡한 속에서도 전 국방부 상충문 현현해의 서거를 도하여 국가장의식을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하도록 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혁명적동지애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고 격정에 넘쳐 토로하였다.

《국민권선대》는 이번에 내놓은 12개의 화편전집들을 영예대전기인 인민군대에 특별명령을 내리시어 악성전염병위기를 가시기 위한 투쟁을 승리적으로 령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모신 화편전집을 《김정은은국무위원장과 명령》이 최우수상인 《대상》

## 높은 민족성과 예술성이 결합된 훌륭한 공연

### — 2022년도 총련 금강산가극단 안삼불공연이 성황리에 진행 —

얼마전 2022년도 총련 금강산가극단의 안삼불공연이 일본의 기후현에서 진행되었다.

첫 공연을 총련 기후현본부 위원장과 실행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제일동포들과 일본시민들이 관람하였다.

일본의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금강산가극단 순회공

연의 뜻깊은 첫 무대를 보기 위해 모였다.

공연의 제목은 《저 하늘에》이다. 여기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그리고 인제나 회망과 깨달음 그리고 함께 지역의 찬바람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려는 제일동포들의 굳센 의지와 결의가 담겨져있다.

기후현에서 금강산가극단의 공연이 진행되기는 4년만이라고 한다.

이번 공연은 기후현상공회제 성 65돐을盛大히 기념하는 동시에 제일동포들에게 조선민족의 궁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 대외친선사업을 촉진하는 계기점으로 흥성하였다.

《활활 개였네》, 군무 《저 하늘을 나는 철새》, 남성독창 《높은 령 넘어가자》를 비롯하여 제일동포사회에서 창작된 노래들이 관람자들의 흥취를 돋구었다. 공연은 민족무용 《농악》의 흥겨운 춤판으로 막을 내렸다.

관람자들이 훌륭한 공연을 펼쳐보인 출연자들을 열렬한 박수로 축하하였다.

공연을 본 많은 사람들은 《높은 예술성과 함께 출연자들의 정열까지 인조는 공연이었다. 감동으로 눈물이 났다.》, 《처음으로 보았다.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소감을 토로하였다.

《활활 개였네》, 군무 《저 하늘을 나는 철새》, 남성독창 《높은 령 넘어가자》를 비롯하여 제일동포사회에서 창작된 노래들이 관람자들의 흥취를 돋구었다. 공연은 민족무용 《농악》의 흥겨운 춤판으로 막을 내렸다.

관람자들이 훌륭한 공연을 펼쳐보인 출연자들을 열렬한 박수로 축하하였다.

공연을 본 많은 사람들은 《높은 예술성과 함께 출연자들의 정열까지 인조는 공연이었다. 감동으로 눈물이 났다.》, 《처음으로 보았다.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소감을 토로하였다.



실행위원들이 힘과 지혜를 합쳐 선전사업을 추진한 결과 민단과 미소동포들은 물론 많은 일본시민들도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모여온 것으로 하여 공연장은 사람들로 흥성하였다.

공연은 남성독창과 무용 《내 나라의 푸른 하늘》로 막을 올렸다. 푸른 하늘을 리상케 하는 조형과 연출, 독색있는 민족관악단과의 조화를 이룬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흥을 안겨주었다.

런이 4인무 《흥겨운 새날 소리》, 저대독주 《은하수와 봉황새》, 독무 《바라춤》, 여성독창 《그대되는 처녀》, 군무 《북춤》 등이 무대에 올랐다.

악성비루스의 전파라는 악조건속에서도 가극단원들의 열정과 노력에 의해 훌륭한 형상된 공연종목들이 무대에 오를 때마다 관람자들이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이러 여성독창 《우리 학교는 우리 고향이다》, 남성2중창 《구름타고 갈까요》, 흥성중창

## 민족의 단합과 번영을 위한 길에서

# 삶을 빛내인 목사 (4)

조국방문후 선생의 활동은 해외그리스도교세력들을 진보화시키는데서 큰 영향을 주었다.

날씨가 정든 곳을 찾아가듯이 선생은 부인과 함께 1982년 9월 두번째로 조국을 방문하였다.

사실 주변사람들이 먼로 정에서 고령의 몸으로 예기치 않은 불상사도 있을 수 있으나 선생의 가슴속에 애추추는 절세위인에 대한 뜨거운 정모임을 막을수 없었다.

조국방문의 나날 선생은 만경대고향집을 비롯하여 평양시와 남포시내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불과 1년여사이 새로 일떠선 웅장한 기념비적건축물들을 경탄의 눈길로 돌아보고 어린아이를 시릴 교편을 잡았던 청산리에도 깊은 감회속에 들린 그들은 또다시 위대한 수령님의 집견을 받는 영광을 지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부인의 건강에 대해 물으시고 성향락선생이 지난해 조국을 방문하고 돌아가서 많은 활동을 한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조국에 와서 보고 가는것을 환영한다.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오수만 있으면 앞으로 많이 와서 조국의 현실을 보고 가는것이 좋다고 하시었다.

그들부부는 조국의 현실을 보고 감동된 심정을 말씀드리면서 위대한 수령님께 정성담아 마련한 선물을 올리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들의 지성에 사의를 표시하시며 그들부부에게 친히 선물을 안겨주시었다. 어느것이나 민족적정서와 절은 귀중한 선물들이는 어디 가서 살든지 한시도 민족의 근본을 잊지 말고 조선사람으로서 참담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어려웠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날 그들부부를 위해 만찬까지 베풀어주시였으며 김성락선생에게 우리는 선생과 같은 애국자들

이 오래 앉아있을것을 원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는것을 영광으로 여기고있다고 하시었다.

중미사대와 반공으로 인한 오행과 편견, 의문과 고집에 얼룩진 선생의 마음속에 그대로 간직되어있는 한가닥 우국지심을 귀중히 여기시어 애국지사로 불러주시고 오래오래 살아야 한다고 극진한 가슴뜨거운 사랑 안겨주시는 사랑.

진정 이것은 주의주장을 넘어 온 겨례를 크나큰 포용력으로 한품에 안아 인생을 빛내여주시는 이 세상 가장 열렬한 인간애, 민족애를 체현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배부실수 있는 고결한 사랑과 의리였다.

이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현관까지 나오시어 아무쪼록 건강을 잘 돌보라고 당부하시며 그들부부가 탄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저어 바래주시었다.

미국으로 돌아간 김성락선생은 고령의 몸이지만 남은 여생을 강그리 바쳐 민족단합을 위하여 정력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던 선생은 로한으로 1989년 8월 3일 세상을 떠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김성락선생이 사망한것과 관련하여 못가 가슴아파하시며 그의 부고를 내고 조국의 여러 사회단체들에서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조전을 보내도록 하시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생전에 주시던 그 믿음과 사랑을 김성락선생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뜨겁게 베풀어주시었다.

그러하여 조국해방 45돐을 맞으며 조국동맹을 위하여 공헌한 애국인사들에게 조국통일상을 수여할 때에 김성락선생에게도 그러한 영예가 안겨지게 되었다.

인생말단을 민족을 위해 값있게 보낸 애국인사 김성락선생,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애국애족의 곁에 계셔도 두의 빛나는 인생이 있고 민족과 역사앞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영진

## 적대세력들의 도발을 단호히 짓밟아버리며 (8)

# 조미대결사에 미국의 수치와 패배를 또다시 새긴 미군정찰적승기적축사건

1994년 12월 17일이였다.

오전 10시 35분경 미군정찰적승기적축사건이 오만무례하게도 공화국적 지역인 고성군 해삼대 남강상류의 골짜기를 따라 150m의 낮은 고도로 금강군 이리리 무산계산까지 종심 7km이상이나 깊숙이 침공해들어왔다.

감시군무를 경각성있게 수행하고있던 인민군 상동병이 적기발견신호를 울리였다.

지휘관의 즉시적인 구령에 따라 군인들은 재빨리 전투진지를 차지하고 사격준비태세를 갖추었다. 지휘관의 전투명령에 따라 제1수사로 임명된 분대장은 사격하지 불리한 조건에서도 원수를 대한 쏘아오르는 중요성, 적기를 무조건 파괴하여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를 안고 신속히 조준하고

방아쇠를 당겼다.

아무진 총성과 함께 적기의 기관부에서 번쩍 불꽃이 튀기고 이어 적기는 돌덩이처럼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떨어졌다.

비행사 한명이 즉사하고 살아남은 다른 한명은 사시나무 떨듯하며 목숨을 살려달라고 빌었다.

적승기는 남조선감정 미8군 소속 항공대의 감시정찰적승기로서 동체가 모두 특수방탄장치로 되어있으며 만전정찰시기에 감시안테나정찰임무를 수행하면서 단 한대도 격추되지 않아 《하늘의 고양이》로 불리우는 최심신항기였다.

적승기적승사항에 대해 보고받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이번 미제침략자들에게 우리의 본

때를 단단히 보여주었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 미제침략군 적승기를 단방에 쏘멸한것은 그 어떤 원수가 우리의 령도와 령공, 명해를 침범한다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선언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것을 실지행동으로 보여준것이라고, 이번 사건을 통하여 수령님께서 육성하신 무적장군인 우리 혁명무력의 불패의 위력을 다시 한번 온 세상에 시위하였다고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어 미제침략군 적승기를 단방에 쏘멸한 분대장이 용감하고 싸움을 잘하였다고 하시면서 그에게 공화국영웅칭호와 중위의 군사칭호를 수여하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미국은 비행기적추사건을 놓고 교활한 막후공작에 매여달렸다.

강경고압자세인 공화국에는 범정할수 없다고 판단한 미국은 다른 나라를 내세워 포로된 적승기조종사를 12월 25일(《성탄절》)전으로 찾아 가려고 꾀했다.

미국의 비열한 속심을 간파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적들의 어리석은 책동을 단죄하시며 미군적승기적추사건은 우리 나라가 미국과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하시었다.

하는수없이 미국은 판문점 회담탁에 끌려나오지 않으면 안되었다.

조선인민군측은 미군적승기의 공화국평공침입본 아나나 우리의 군사시설에 대한 정찰목적용을 사죄하지 않

## 조선허공을 습격하여 황후를 살해한 귀족같은 만행

에 따라 일본수비대들은 10월 7일 밤부터 8일 새벽사이로 사다리를 타고 성벽을 넘어 평화문을 열고제기였으며 저항하는 여러명의 조선군인들을 살해하고 강북공을 완전히 포위공격하였다.

공안은 삼시에 일본살인마들의 살인, 파괴, 약탈장조로 변하였다.

맛다드는 궁녀들을 다치는 대로 죽인 놈들은 쓰러진 궁녀들 가운데서 명성황후를 확인하자 범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채 죽지 않은 그를 미리 준비한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불태워죽였으며 남은 유골까지도 못속에 집어던져버렸다.

명성황후에 대한 살해는 당시 왕원에 의하여 대표되던

조선봉건왕조의 국가주권에 대한 잔혹한 유린이었고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불법무도하고 치명적인 반인륜적잔학이였으며 철두철미 조선침략정책에 따라 계획되고 집행된 특대형반국가적범죄였다.

당시 명성황후살해사건에 직접 관여했던 한 일본인까지도 자기 수기에서 《선혈로 물든 민지의 시체에는 석유가 뿌려지고 불이 달렸다. 순식간에 시체는 화염에 싸여 이상한 냄새를 풍기였으며 참으로 귀부추추(귀신도 서글프게 운다는 뜻)하였다.》고 고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수성과 교활성, 파렴치성이 체질화된 일본은 명성황후살해의 국가적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사실을 외무조준하는 한편

몇몇 하수인들에 대한 《재판》을 벌리는척하다가 얼마 후에는 물레 빼돌리었다.

명성황후살해사건이후 조선은 비법적으로 강점한 일본은 40여년동안이나 류레없는 식민지파쇼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온갖 불행과 재난을 자기 수기에서 《선혈로 물든 민지의 시체에는 석유가 뿌려지고 불이 달렸다. 순식간에 시체는 화염에 싸여 이상한 냄새를 풍기였으며 참으로 귀부추추(귀신도 서글프게 운다는 뜻)하였다.》고 고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수성과 교활성, 파렴치성이 체질화된 일본은 명성황후살해의 국가적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사실을 외무조준하는 한편

《올미사변》이 있을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일본은 오늘까지도 피비린내나는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커녕 그 책임이 사 벗어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면서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우리 민족은 일본의 죄악찬 역사를 절대로 잊지 않고 있으며 섬나라 오랑캐무리들에서 반드시 그 대가를 천배로 받아내고야말것이다.

김광명



일본살인귀족들에 의해 살해당한 명성황후의 장례식